

리비아 동서 간 내전 재발

- 제2차 내전 이후 양분화된 리비아 동서부 정부가 2019년 4월 동부측의 선제 공격으로 다시 충돌하면서 약 5년 만에 리비아 내전이 재발함.
 - 지난 4월 4일 동부 정부 지도자인 칼리파 하프타르(Khalifa Haftar) 장군이 서부 트리폴리(Tripoli)로의 진격을 휘하 부대에 지시하면서 양측 간 최초 무력 충돌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도시 남단에서 크고 작은 교전이 이어지며 내전이 격화됨.
 - 리비아는 2014년 제2차 내전 종결 이후 서부 이슬람주의 세력과 동부 세속주의 세력으로 양분화¹⁾²⁾
 -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에 따르면 내전 발발 이후 약 한 달간(4월 28일 기준) 민간인 포함 총 345명의 사망자와 1,3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함.
 - 비록 UN(United Nations)은 서부 정부를 인정하고 있지만, 미국 등 주요국이 사실상 동부 정부 지지를 선언하면서 내전 양상이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음.
 -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영국은 최초 공격 발생 직후 리비아 휴전을 촉구하는 안보리 결의안을 마련하였으나, 미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상정 무산
 - 지난 4월 19일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하프타르 장군이 리비아 정치 체제 전환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사실상 동부 정부 지지 선언
- 이러한 동부 정부의 군사 행동은 국제사회로부터 리비아의 유일·공식 정부로 인정받고 이를 통해 원유 수출을 원활하게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됨.
 - 동부 정부는 리비아 내 70% 이상의 원유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생할 수 있는 여력이 크지만, 국제사회로부터 공식 정부로 인정받지 못해 원유 수출에 여러 제약을 받아 왔음.³⁾
 - 더불어 자위야(Zawiya) 원유 수출항 등 주요 수출 관련 시설이 서부 정부 관할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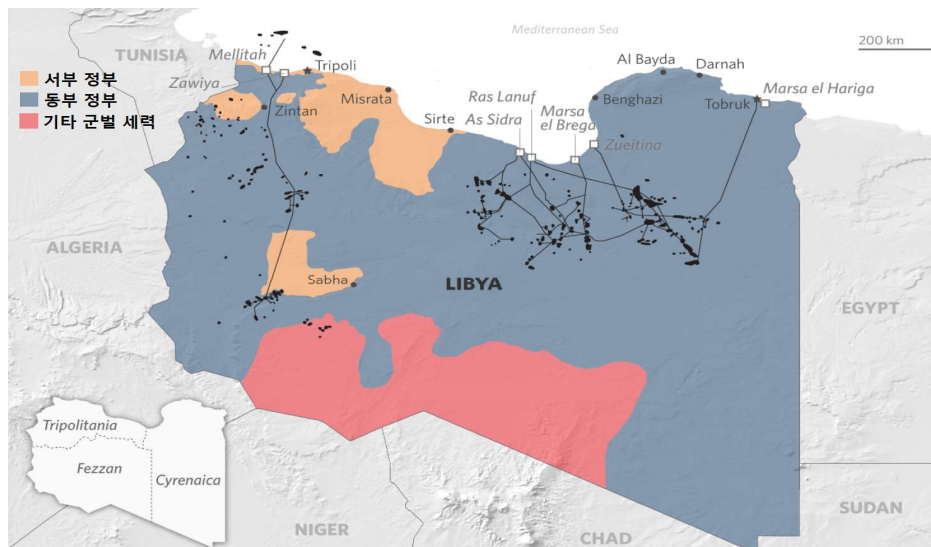
1) 2011년 발생한 리비아 민주화 운동으로 약 40년간 장기 집권한 무아마르 카다피(Muammar Gaddafi) 정권이 붕괴되었으나, 이후 정권 장악을 둘러싸고 이슬람주의 세력과 세속주의 세력 간 갈등 지속

2) 현재 서부에는 양측 세력의 정부 단일화 합의로 2015년 창설된 리비아 통합정부(Government of National Accord)가 위치하고 있으나, 당시 동부측이 이에 합의만 했을 뿐 실질적인 정부 구성 및 운영에 불참했기 때문에 이슬람주의적 성격 존속

3) 리비아는 세계 9위의 원유 보유국(확인매장량 기준)이며, 원유 부문이 GDP의 60%, 총 수출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등 동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있어 서부측의 협조 없이는 자체적인 원유 판매에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임.
- 이에 2016년 말부터 서부 정부와의 협의하에 원유 생산·판매를 본격적으로 재개하였으나, 양측이 수익 분배에 있어 이견을 보이며 불만이 점증되어 옴.
 - 원유 판매 수익은 각 정부에 귀속되지 않고 독립 기관인 중앙은행이 추후 예산에 따라 분배하고 있으며, 동부 정부는 동부측 기여분에 비해 배정된 예산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불만 표현

그림 1. 리비아의 주요 세력 분포 현황




자료: World Energy Atlas.

- 이번 내전 발생으로 유가 변동성 및 우리 건설사의 현지 시장 복귀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⁴⁾
 - 내전 발발 직후 서브텍사스산원유와 브렌트유 가격 모두 5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 확산으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음.
 - 아울러 2014년 제2차 내전 당시 철수한 우리 건설사의 현지 시장 복귀 및 신규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됨.
 - 2014년 리비아에서는 국내 16개사가 총 36개의 중대형 프로젝트(총 105억 달러 규모)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내전 발발로 치안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철수 단행
 - 그러나 석유 수출 재개, OPEC 감산 면제에 따라 최근 경제 부문을 중심으로 리비아 정세가 다소 안정되는 기미를 보이자 해당 건설사들은 2018년 초부터 대규모 현장 점검단을 파견하고 외교부, 국토부와 사업 재개 시점을 논의하는 등 복귀 수순 본격화
 - 지난 3월 20일 대우건설은 리비아전력청(General Electric Company of Libya)과 450MW

4) 다만, 한국의 리비아산 원유 수입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 내전이 우리나라 원유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유광호 연구원